

강화도 정착기

글 김주호 조각가

김주호, 《함성·비명》,
질구이, 높이 68cm, 2002

내 작업실에는 사람이 와글와글 많다. 웃고 떠들고 고함치고 있다. 하얀 이를 드러낸 사람, 입 꼭 다물고 고민하거나 생각에 잠긴 사람 등 가지가지다. 재료는 흙, 나무, 철, 돌 가리지 않는다. 각 재료는 그 재료의 맛이 있어 만들다 보면 의외의 형태가 발견되는 즐거움이 있다.

조각가는 형태를 찾아 고민하게 된다. 추상조각에서 더 활로를 못 찾고 답답하던 차, 우리 이웃, 내 주변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부터는 바로 이거다 하고 신나게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작품이 많아져 좁은 공간이 문제가 되고 좀 넓은 곳을 찾다 보니 시골행을 결심하게 된 것이다.

세상 물정 모르고 무식하면 용감해진다든가. 우리 넷, 한식구는 서울서 60km 떨어진 강화도 내가저수지 옆 동네 속에 용감히 내려앉았다. 몇 년째 빈집으로 두어서인지 허술하기 짝이 없었는데, 쥐구멍 막고 기름보일러 공사, 화장실 공사, 입식부엌 등 내부 수리

하니 운치 있는 새 집이 되었다. 대문간 옆에 있는 방 둘은 벽을 허물고 큰 방 하나로 만들어 작업실로 하고 추녀 밑에는 작품 놓을 선반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이사온 첫날 밤은 멀리서 들리는 개 짖는 소리, 풀벌레 소리에 숨죽였고 잠들만 하면 천장에서 구탕탕 쥐들의 행진 소리에는 머리맡 베개를 댄다 던졌다. (지금 생각해도 끔찍하다.)





김주호, 〈자화상〉, 질구이, 19×16×29cm, 1992

다행히 두 딸이 다닐 초등학교가 가까이에 있어 맘이 놓이지만 우린 대문 잠그기를 철저히 하며 조심스레 강화시절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그때가 올해로 10년째가 된다. 첫 겨울에 연탄난로 따듯한 온기 속에서 작업을 많이 했다. 그해 그렇게 열심히 하는 작가는 나밖에 보질 못했다.

대문과 이웃

누구나 낮은 곳에 가면 실수를 하거나 오해를 하기 마련이다.

서울 아파트에서 하던 습관대로 여기서도 문 잠그기를 잘했다. 그랬더니 언젠가 우체부 아저씨가 소포 가져와서는 대문이 닫혀 있어 주인이 없는 줄 알고 몇 번 되돌아간 일이 생겼다.

시골은 대부분 농사를 짓기 때문에 낮에는 보통 일하러 나갈 때 대문을 닫고 나간다. 그래서 빈집이 되는 것이고, 대문 열고 집에 주인이 들어왔으니 대문이 열려 있는 셈이다. 대문을 닫고 산다는 것은 이웃과 마음을 닫고 산다는 것이고 서로 못 믿는다는 것과 같다 하겠다. 대문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부터는 아침에 일어나면 대문부터 활짝 연다. 그후 이웃집 싱싱한 과일이 열린 대문으로 들어오고 우리 집 음식의 이웃집 나들이가 찾아지게 되었다.

어쩌다 이웃집 분과 대문 앞에서 잠시 얘기를 나눈다. 그런데 얘기하다 간다 온다 말없이 자기 대문으로 들어간다. 다시 나오려나 기다렸는데 안 나온다. 내가 뭐 실수했다, 이상하다. 그 다음에도 계속 그렇게 헤어지게 된다.

아하! 그렇구나. 간다 만나 할 것도 없는 코앞이 니 집 내 집인데 뭐 새삼 헤어짐의 인사란 말인가. 그렇게 생각해 보니 “안녕히 가세요” “들어가세요”가 낮은지러운 것 같다.

우리 동네 신작로에서는 동네 차와 자주 만나게 되는데 그때 이렇게 인사한다. 서로 알아보는 데 1초, 인사 1초. 인사라는 게 한 손 흔들고 눈 마주치는 거다. 기계문명이 인간성을 잃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증명된 셈이다. 결국 인간에게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이지 사회구조, 자본주의, 도시화 등이 인간성을 축소시킨다 볼 수 없다 하겠다.

촌스럽다는 말

내가 서울에 있을 때는 ‘촌스럽다’는 말이 뭔가 여유가 있는 것 같았는데 촌에서 오래 있다 보니 ‘촌스럽다’는 말이 듣기에 거북하기만 하다.

TV 드라마에서 가볍게 내뱉는 ‘촌스럽다’는 배우의 표정이 왜 그리 밍게 보이는지, 자기네들의 만족을 위해 촌사람 가슴 찢금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구 전체를 지구촌이라고도 한다. 따지자면 서울도 하나의 촌일 뿐이다. 촌에도 서열이 있는지 미국의 신촌인 뉴욕은 가슴을 펴고 세계를 내려보는 것 같고 다른 촌나라의 촌도시는 모두 그쪽을 향하여 목 길게 뽑은 형상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영어열풍, 미국열풍, 원정출산도 촌나라 극복하기 위한 치열한 노력이라 생각되기도 한다.

나의 이러한 촌스러움에 대한 조금 지나친 비약은 우리들의 우리 문화에 대한 인식부족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식부족이랄 것도 없이 무턱대고 서구 취향이 스스로를 낮게 보는 경향이 안쓰러워서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비싼 돈과 위험을 무릅쓰고 얼굴 고치는 수술이 유행까지 할까. 코 몽뽕한 코끼리, 코 긴 돼지를 상상해 보자. 코끼리는 코가 길어야 하고 돼지는 몽뽕코여야 한다. 우리 얼굴의 중요한 코를 동물과 비교해서 뭐하지만 신체 콤플렉스의 비교가 서



■ 김주호, 〈자네만 줄게〉, 나무, 78×21×21cm, 2000

구 취향이어서 하는 말이다.

내가 만드는 사람은 늘씬한 비례, 계란 같은 얼굴은 없다. 8등신은커녕 4등신 정도이니 하체가 짧다. 얼굴은 크고 평평집하다.

그러나 난 그들에게 당당한 자세에서 당찬 표정이 넘쳐나게 하고 싶다.

붉은 악마, 그들의 활기에 넘친 표정을 만든다.

어쩌다 화가 났다가도 금방 미안해지는 김 과장을 만든다.

수줍어 말 못하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미스 리를 만든다.

저녁 노을 보며 석양주 한잔하자는 이웃집 아저씨를 만든다.

내가 만든 사람은 짧은 다리, 뭉뚱코는 문제가 되질 않는다. 오히려 당당하고, 표정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작품구상도 무궁무진하다. 그후 몇 해 뒤 새로 이사를 왔다. 터도 좋고 작업실도 지난번 빌린 집에 비교가 안 되게 넓고 좋다. 이제부터는 정말 작업만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시골집의 불편한 점이 여기서도 하나둘씩 내 시간 잡아먹게 한다. 여름 장마 지나면 놀라울 정도로 집안이 온통 풀이다. 거진 어깨만큼 자란 풀을 낫질하는 데 몇 날이다. 거기다 벌통 건드려 벌침세례 당하고 팔이 통통 붓는다. 몇 날 쉬어야 한다. 겨울에는 보일러가 한 번씩 골탕을 먹인다. 동파된 곳 찾아야 한다. 이런 일말고도 할 일이 계속된다. 내가 요새 좀 안 풀리는 것은 핑계가 아니라 순전히 이런 잡일 때문이다. 🌈